

“유엔인권이사국인 中, 北 인권 개선 위해 영향력 행사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강제북송진상구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7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상명에서 “지난 10월 15일 국제적인 NGO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2024년 이후 최소 406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시위가 있는 이후 2024년 1월 108명의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에 체불 임금으로 보내졌고 동년 4월에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 212명과 함께 6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2023년 10월 9일 한 저우 아시안게임 끝난 다음 날 군사작전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 제공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조직적으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강제질종,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포고령을 채택했다”며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탈출 등기나 사전 박해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국경 이탈 행위 자체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을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십여 년간 북송된 사람들은 자의적 고문, 고문, 부당한 대우, 강제실종, 성폭력 및 젠더폭력 등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각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실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강제송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박해나 고문의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로는 누구도 강제송환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제다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며 인권이사회에 이사국으로서 인권 문제 개선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조력한다면 세계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계인들은 중국을 보이콧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반문명국가 국민으로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중국은 유엔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원을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복음 처음 들어온 인천에서 민족복음화 새 불길 타오를 것”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 열려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316교회(담임 박용배 목사)에서 ‘인천광역시 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7년에 예정된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전국 조직 확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표본부장 박용배 목사, 총괄본부장 라건국 목사, 상임본부장 박병철·박홍부·이준남·홍철웅·김선강·한정관 목사, 그리고 사무총장 김영돈 목사가 총재 이태희 목사에게서 취임패를 받았다.

대표본부장으로 취임한 박용배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천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140여 년 전 이 땅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와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제 다시 그 인천에서

‘민족복음화의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섬리요, 역사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인천본부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워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총괄본부장은 라건국 목사는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한반도와 열방으로 확산되도록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의 무릎을 깊겠다”며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사도행전 1:8)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심령만 가지면 민족복음

화는 꼭 우리 시대에 이뤄질 줄 믿는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가능할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이 시작되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소명의식을 갖고 사

명감에 불타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힘들

어졌다. 부디 오늘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

이 철저한 소명의식과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인천을 복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2027년까지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

하는 것이 제 목표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라건국 목사(총괄

본부장)의 인도로 박병철 목사(상임본부

장)가 기도했으며, 한정관 목사(상임본부

장)가 성경을 봉독했다. 설교한 이태희 목

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김영돈 목사

(사무총장)의 사회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취임식은 취임패 증정, 박용배 목사(대

표본부장)의 감사인사, 김병호(연구원장·

부총재·양준원(성회 사무총장)·손재경기

회본부장)·장순직(상임부총재)·이성화(민

복 부천본부 대표본부장)·노희석(예성 중

경총회장, 서울강동지역교회연합회 대표

회장) 목사의 축사 및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로, 현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중심이 돼 준비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에서 시작됐다”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성령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한 평양대부흥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한국교회를 일제의 어둠에서 깨웠다. 모든 백성들과 선각자들이 일어나 대한독립을 외쳤다”고 했다.

이들은 “973년 ‘밸리 그雷함 서울전도 대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일일 100만 명이 모인 큰 집회였다”고 했다.

이어 “1974년,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김준곤 목사와 세계대학생총연맹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예의도광장에서 ‘엑스플로 74 전도대회’를 개최했다”며 “하루 평균 130만 명이 모여 청년 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을 다짐했다. 나라의 미래인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77민족복음화대성회”는 하루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왼쪽)가 인천 본부 종괄본부장인 라건국 목사(오른쪽)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를 위해 모든 교파와 교단,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제 우리 모두가 민족 구원이라는 대명제 앞에 하나가 되어 한 국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1 용 산 역	4 신 용 산 역	G T X -B	K T X	경 의 중 앙 선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체불가 위치 오피스텔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발코니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리 / 25cm 더 높은 쟁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차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공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시 기회 없습니다

분양 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